



송정역



광주역

KTX 송정역·광주역 이원화 논란 재가열

2015년 호남고속철도 개통을 앞두고 KTX정차역을 광주 송정역과 광주역으로 이원화해야 한다는 논란이 재가열 되고 있다.

정부가 애초 광주 송정역을 광주·전남 거점역으로 일원화하기로 한 가운데 최근 KTX 광주역 진입이 경제적 타당성이 미흡하다는 연구용역 결과까지 나오면서 북구청과 북구지역 정치인들을 중심으로 KTX 광주역 이원화 주장이 거세지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한국교통연구원에게 의뢰한 '호남고속철도 광주지역 이용자 접근성 향상을 위한 KTX 정차역 이원화 방안 연구용역'에 따르면 하남역에서 광주역까지 총 연장 2.5km의 지선을 통해 KTX를 광주역에 진입시키는 것은 접근성·편의성·통행시간 측면에서는 유리하다고 분석했지만, 경제성은 미흡한 것으로 나왔다.

이같은 정부의 연구용역 결과가 알려지자 광주역이 소재한 북구청

국토부, "경제성 미흡" 광주역 진입 부정적

북구·의원들 '이용자 편의도 중요' 반발

과 북구지역 정치인들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경제성만을 따질 것이 아니라 이용자 편의 등을 고려해 KTX를 광주역에 진입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광주 북구는 이날 "경제적 타당성만으로 KTX 연결 여부를 결정해서는 안 되며 접근성 저하, 구 도심 공동화 등 문제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KTX 호남고속철도의 광주역 연결에 대한 건의안을 광주시에 전달했다.

앞서 강기정(민주·북구 갑) 국회의원은 "KTX 광주역 이원화 사업은 경제적 타당성의 높고 낮음으로 추진 여부를 결정해서는 안 된다"며 "호남고속철도 본 사업 또한 경제적 타당성이 0.39에 불과했다"고

이용자 편의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향후 국토교통부와 협의 과정이 남아있으므로 'KTX가 광주역에 진입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이다. 시는 정부의 우선 연구용역 결과 경제적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결론난 하남역에서 광주역까지 지선을 통해 KTX를 광주역으로 진입시키는 방안, 송정역에서 '후진'으로 광주역으로 진입하는 방안, 송정역에서 셔틀전동차를 통해 광주역을 이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광주역 활용문제는 내년 광주시장 선거와 맞물려 민감하게 작용할 것이라 분석이다.

재선을 노리는 강운태 광주시장으로서 광주역이 소재한 북구지역 표심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고, 북구 갑이 지역구인 강기정 의원도 내년 광주시장 선거의 잠재적 후보군으로 분류되고 있기 때문이다.

광주 북구의회도 지난 24일 성명을 내고 KTX 광주역 진입을 위한 연결선 공사 추진을 국토교통부에 촉구했다. 북구의회는 "광주권 KTX 이용자의 60%가 광주역을 이용하고 있어 경제적 타당성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광주시·전남도 정부개편 맞춰 조직개편 추진

市, 자치행정국을 안전행정국으로... 안전과 신설도, 과학부서 독립... 해양·수산 조직 강화키로

미래창조과학부 신설과 해양수산부 부활 등 정부 부처 개편에 맞춰 광주시와 전라도가 내부 조직개편을 검토하고 있다.

광주시는 25일 "이달 말 안전행정부의 조직개편 권고안이 내려오면 자치행정국을 안전행정국으로 변경하고, 안전과 등을 신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또 정부의 조직개편에 따라 일부 국의 명칭이나 기능 변경 등도 고민중이며, 오는 6~7월께 시의회에 조직개편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전남도도 '창조과학부'(가칭) 신설

을 검토하는 등 조직 개편을 논의 중이다. 박준영 전남지사는 지난 22일 열린 중앙부처 업무계획 대응방안 보고회에서 "과거 기업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기 위해 투자정책국을 환경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녹색성장정책실을 각각 신설한 것처럼 (미래창조과학부 신설에 따라) 과학부서를 따로 독립해 새로운 국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전남도의 경우 지난 2007년까지 경제과학국이 있었지만 현재는 경제산업국의 과학융합기술계로 축소된 상태다.

이에 따라 계 단위인 과학 분야가 일선 과나 국으로 승격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일부 국이 과학 분야를 흡수해 이름이 변경될 수도 있다.

또 해양수산부 부활에 따른 해양·수산 관련 조직 강화도 예상된다. 과거 해수부가 사라지면서 업무가 지방으로 이양된 전남도 해양수산과학원은 15개 산하 센터에 159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지만 원장 직급은 4급이다. 2급 원장 1명과 3급 국장 2명이 파견돼 있는 전남도농업기술원에 비해 전반적으로 직급이 턱없이 낮아 제 역할을 기대하기 힘들었다.

해수부 부활로 관련 사업과 예산이 늘면, 자연스럽게 전남도의 해양·수산 부서의 역할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바르게살기운동 전국여성지도자대회' '2013 바르게살기운동 전국여성지도자대회'가 25일 광주 염주체육관에서 전국 17개 시·도협의회와 232개 시·군·구협의회, 3271개 읍·면·동위원회 대표 5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문화전당 개관 초기 법인화 반대" 만성적자 지방공항 활성화 추진

광주시, 예산확보 어려워 경영부실로 이어질 것

국토부, 협의회 구성... 광주공항 등 11곳 대안 마련

광주시가 최근 국립 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의 운영주체와 관련한 다양한 주장이 제기되는 것에 대해 "경영 효율성을 따지는 전당의 법인화는 안 된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광주시는 24일 보도자료를 내고 "수익시설이 없는 문화전당을 법인화하면 운영에 필요한 예산확보가 어려워지고 결국 경영부실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화전당은 예술의 전당처럼 대관위주로 운영되는 수익기관이 아니라 공공성이 강한 문화기반시설이라는 한계가 있다는 것

이다. 광주시는 이어 "문화전당 개관 초기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기관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예산과 조직,사업 등 문화전당이 안정화된 후에 법인화를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는 이와 함께 "오는 2015년 문화전당 개관에 맞춰 문화전당 5개원(아시아예술극장·어린이문화원·민주평화교육원·창조원·정보원)의 공연·전시감독을 하루빨리 선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광주공항 등 만성적인 경영적자에 시달리는 지방공항 활성화를 위해 정부, 지방자치단체, 항공사, 공항운영자, 여행사,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회가 구성됐다.

국토교통부는 25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첫 회의를 열고 국토부 항공정책관을 위원장으로 25명의 위원이 참여하는 '지방공항 활성화 협의회'를 구성하고, 분기마다 회의를 열어 항공수요 증가 방안과 지방공항별 특성화 전략, 공항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정부는 그동안 국제선 운수권을 배

분할 때 지방공항 취항 항공사를 우대하고 신규 취항을 허가나 운항 허수를 늘릴 때 공항시설료를 감면하는 등 지방공항 활성화를 꾀했지만, KTX 운행 등으로 국내선 항공 수요가 감소해 김포·제주·김해를 제외한 지방공항 11곳은 경영적자에 시달리는 실정이다.

국토부는 이날 회의에서 "지역 내의 한정된 수요에만 의존하지 않고 지자체, 여행사, 항공사 등과 협의체를 운영해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실사단 29일 광주 방문

시설·유지 의지 점검... 국무총리도 점검

2013세계수영선수권대회 현지 실사단이 오는 29~30일 광주를 방문한다. 25일 광주시에 따르면 국제수영연맹(FINA) 실사단은 오는 29일 인천공항으로 입국해 특별 전세기를 타고 광주공항에 도착, 실사에 들어간다.

실사단은 코넬 마르쿠레스쿠(루마니아) FINA 사무총장을 비롯한 마케팅·미디어·시설부문의 퍼터 홀(스위스), 법률분야의 마크 카노(스페인)와 FINA 공식 마케팅사인 덴츠(DENTSU) 관계자 2명(일본) 등 총

5명의 전문가로 구성됐다. 실사단은 수영시설과 마케팅 전략, 지역민의 유지 의지(분위기) 등을 평가하게 된다.

실사단은 30일 오전 경영, 수구, 싱크로나이즈드 등 메인 경기장이 들어설 남부대학의 현장과 프레스센터와 국제방송센터 등이 들어설 장소를 점검한다. 나주호에 둘러 오른워터(Open Water·바다수영) 시설과 하이다이빙 시설물을 점검한 후 라마다 호텔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개최할 계획이다.

30일에는 삼성전자와 기아자동차 등 산업체를 방문한 뒤 특별전세기로 서울로 이동해 이홍구 전 국무총리 초청 환영 만찬에 참석한다. 이 자리에는 박태환 선수도 함께 참석해 대회유치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실사단은 5월 1일 정중원 국무총리를 접견한 뒤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할 예정이다. 광주시는 애초 청와대에 실사단의 박근혜 대통령 면담을 요청했으나 무산됐다.

광주시는 실사단에게 대회개최 역량과 마케팅 능력, 세계 수영발전을 위한 비전 등을 제시하기로 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부 고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피부과학교실 김영표 명예교수님께서 2013년 4월 24일 오후 8시 00분 (음력 3월 15일) 별세하셨기에 알려드립니다.

발인일시: 2013년 4월 27일(토) 오전 9시
발인장소: 광주 학동 전남대학교병원 장례식장 제 1분향소
장 지: 광주광역시 남구 도곡동 선영

2013년 4월 26일

아들 김병구, 김병주, 김병용, 김병희, 딸 김소희, 이양희, 며느리 이양희, 한혜원, 한혜신

연락처 010-5665-0524

50년 전통 대를 잇는 한의원

북경당 한의원

건강한 다이어트
한방 비만클리닉

체성분 분석기 도입, 체지방분해침 시술, 고주파 지방분해 시술

한의학박사 박상준 원장
동신대학교 외래교수 역임

KT, 중앙초교, 금남로, 개림동, 주심동, 구.한미쇼핑, 동부소방서

진료문의 062)227-7575

진/료/시/간
평 일 : 오전9시~오후7시
토요일 : 오전9시~오후4시
일요일휴진, 공휴일은 오전진료

요리 하는 남자

YONAMJA
Fusion Family Restaurant

STEAK / PASTA / PIZZA / BEER

5월 중순 광주 유·스퀘어점

OPEN

출직원 | 주방직원 | 파트타이머
즐겁게 함께할 가족모집
E-mail : rsh3366@hanmail.net

광주 유·스퀘어점 062) 673-7979